

보도시점 2023. 4. 24.(월) 16:00 배포 2023. 4. 24.(월) 14:00

법무당국,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재정당국,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

- (국방) 케이(K)-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군 복무여건 개선 지원
- (보훈) 보훈부 승격에 걸맞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일류 보훈체계 실현 지원

□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.24(월) 14:00 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치안·국방·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,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점 투자분야 중 하나인 「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 개요 >

- ◇ 일시·장소: 2023.4.24.(월) 14:00~16:00,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7층 국제회의실
- ◇ 주요의제: 국방, 치안, 보훈 등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 방안 논의
- ◇ 참 석 자: (기 재 부) 제2차관, 예산총괄·사회·행정예산심의관, 재정정책국장 등
(관계부처) 법무부 차관, 경찰청·보훈처 차장, 국방부 인사복지실장
(연구기관) 한국국방연구원(KIDA), 한국개발연구원(KDI), 한국조세재정
연구원(KIPF) 한국보건사회연구원(KIHASA),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(KICJ)

□ 최 차관은 최근 경제·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,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‘약자복지’, ‘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’, ‘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’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’24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을 재차 강조하였다.

【 치안 】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·대응에 중점 투자

-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,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과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
 -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·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 등을 제언하였다.
-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*함에 따라 검·경·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」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며,
 - * 마약 단속 현황 : ('14) 9,984명 → ('18) 12,613명 → ('22) 18,395명
 - “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”는 대통령님의 말씀(23.4.18)을 언급하면서,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·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.
 - 특히 불법유통 사전차단, 수사역량 집중, 중독자 치료·재활, 교육·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였다.
- 최상대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,
 -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‘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,
 - ‘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또한 참석자들은 전세사기, 스토킹,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아동·여성·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·대응·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,
 -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·노후화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,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등도 논의하였다.

【 국방 】케이(K)-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지원

- 한국국방연구원(KIDA) 유준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러·우크라이나戰 장기화, 북한의 핵·미사일 등 現 안보상황과 주요국의 군비증가율, 국방비 결정구조를 비교 설명하며 국방비의 탄력적 투자 필요성을 제언하였다.
-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방위사업청 차장은 2024년 국방분야 중점투자 방향으로 인공지능(AI)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3축체계 구축, 군구조 및 교육 훈련 혁신, 국방 연구개발(R&D)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 국방투자 혁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.
- 최상대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 -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(AI)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,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,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【 보훈 】유공자의 희생·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훈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,
 - 고령 및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 강화, 의료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,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제언하였다.
- 보훈처 차장은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62년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·출범함에 따라 높아진 위상만큼 일류보훈 실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.
- 최 차관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·복지서비스 강화,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- 끝으로 최 차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.

< 안건별 담당자 >

국방	예산실 국방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의영 (044-215-7450)
		담당자	사무관	신동호 (rain0136@korea.kr)
	예산실 방위사업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철규 (044-215-7460)
		담당자	사무관	오성태 (ost1357@korea.kr)
치안	예산실 법사예산과	책임자	과 장	조규산 (044-215-74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철 (bckim8123@korea.kr)
보훈	예산실 교육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5-72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주선 (wbff199@korea.kr)

